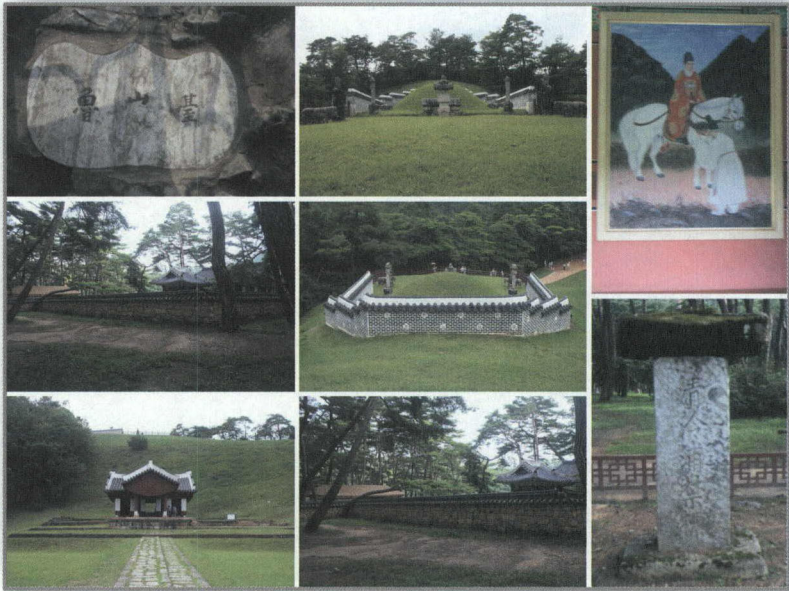


영월군



장릉(莊陵)

1. 연혁

능 주 : 단종(端宗)[1441~1457]

위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지정번호 : 사적 제196호

봉릉연대 : 1516년 1698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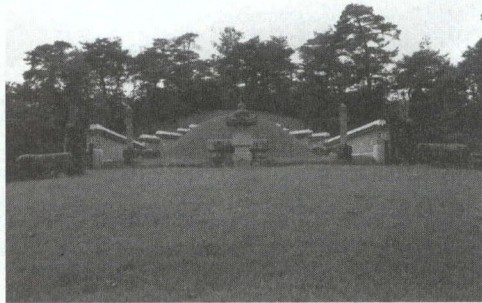
2. 왕릉 소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장릉은 조선 6대 단종(재위 1452~1455)의 무덤이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충신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계획이 밝혀져 영월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호장 엄홍도가 장사를 지냈다. 중종 이후 조정에서 단종에 대한 제사와 무덤에 대한



장릉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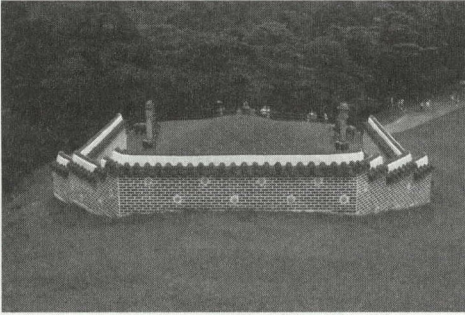
무덤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았다. 능의 양식은 간단하고 작은 후릉의 양식을 따랐으므로 석물은 왜소하면서도 간단한 편이다. 명릉이라 만들어진 사각지붕형의 등인 장명등은 장릉에서 첫선을 보이게 된다. 특히 장릉은 무덤 제도에 의해 정해진 것 외에 단종에게 충절을 다한 신하들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배식단사를 설치하였다. 정려비·기적비·정자 등이 있는 곳은 이곳 뿐이며, 모두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이한 단종과 관련된 것들이다.



장릉 원경

3. 능주 소개

단종(端宗)은 문종(文宗)의 원자(元子)로서 세종(世宗) 23년(1441)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景福宮 資善堂)에서 탄생하였으며 휘(諱)가 홍위(弘曄)이고 모후(母后)는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이며 모후 권씨(母后 權氏)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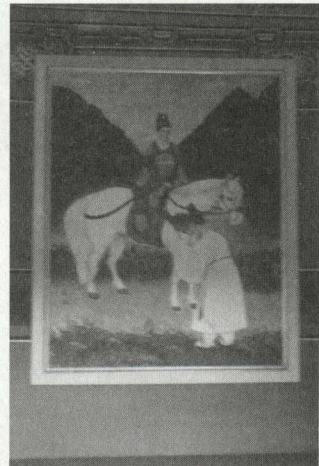
뒤에서 바라 본 장릉

단종 탄생 익일(端宗 誕生 翌日)에 산후병(産後病)으로 승하하였다. 세종 30년(1448년) 4월 3일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冊封)되었으며 문종 즉위년(1450) 7월 20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고 문종(文宗) 2년(1452) 5월 14일 문종이 승하함에, 이 해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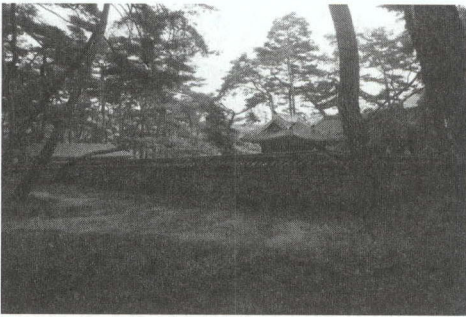
경복궁 근정문(景福宮 勤政門)에서 즉위하였으니 춘추 12세였다.

문종이 임종에 앞서 단종(端宗)의 유충(幼冲)함을 염려하여 영의정 황보인(黃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 보좌(補佐)를 유언으로 남겼으나 고명대신 등이 단종 원년(1453) 10월 10일 계유정란(癸酉靖亂)으로 피살되고 문종의 아우이며 왕숙(王叔)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영의정이 되어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였고 수양은 아우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고명대신과 불궤(不軌)를 꾀하였다 하여 강화도(江華島)로 추방하고 단종(端宗) 3년(1455) 윤6월 11일 역시 아우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역모(逆謀)의 죄로 종친(宗親), 궁인(宮人), 시신(侍臣)과 함께 유배시키자 단종(端宗)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세조 3년(1457) 9월 순흥(順興)에 유배(流配)되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이 단종비(端宗妃)



단종 유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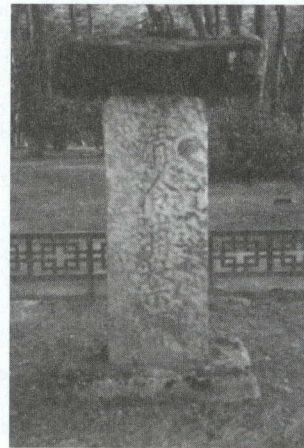
청령포의 단종 유배지

의 부 송현수(宋珪壽)와의 단종복위계책(端宗復位計策)이 발각되자 노산군(魯山君)은 폐서인(廢庶人)이 되었고 이 해 10월 24일 사사(賜死)되었으니 춘추 17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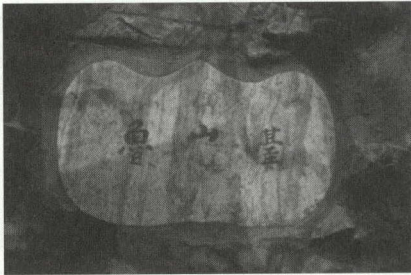
단종(端宗)의 유해는 동강(東江)에 흘렸는데 영월호장(寧越戶長) 엄흥도(嚴興道)가 국법(國法)

을 어기고 어시(御屍)를 수습(收拾)하여 발산 동을지 신좌을향(鉢山 冬乙旨 辛坐乙向) ; 남서에서 북동향)에 밀장(密葬)하였으며 중종(中宗) 11년(1516)에 노산묘(魯山墓)를 찾으라는 왕명(王命)이 있었고 고노호장 엄수(故老戶長 嚴壽), 양인 지무작(良人 智無作), 관노 이말산 등(官奴 李末山 等)의 진언(進言)으로 이 해 12월 15일 성분(成墳)하였으나 다시 방치(放置)되었고 중종(中宗) 36년(1541) 당시 영월군수 박충원(寧越郡守 朴忠元)이 현몽(顯夢)에 따라 노산묘(魯山墓)를 찾고 묘소(墓所)를 수축 봉제(收縮 奉祭)하였다. 선조(先祖) 13년(1580) 강원감사 정철(江原監司 鄭澈)의 상계(狀啓)에 따라 상석(床石), 표석(標石), 장명등(長明燈), 망주석(望柱石)을 세웠다.

임란(壬亂) 이후 봉묘치제(奉墓致祭)가 다시 소홀해졌으며 숙종(肅宗) 7년(1681) 7월 21일 노산군(魯山君)을 노산대군(魯山大君)으로 추봉(追封)하였고 숙종(肅宗) 24년(1698) 11월 6일 추복(追復)하여 묘호(廟號)를 단종(端宗)으로 하고 중



단종 유배지 청령포 표석



청령포에 있는 노산대

묘 영녕전(宗廟 永寧殿)에 부묘하였으며 능호(陵號)를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단종(端宗)이 승하(昇遐)한지 241년 만에 변례(變禮)를 버리고 왕실(王室)의 정례(正禮)를 되찾게 된 것이다.

곡장(曲墻)은 3면(面)이고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은 세우지 아니하였다. 숙종(肅宗) 24년(1698) 11월 단종(端宗)의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를 추복(追復)하면서 능상(陵上)의 석물(石物)들은 후릉(厚陵)의 예를 본받아 행하라는 교지(校旨)에 따른 것이며 능전(陵前)에 상석(床石)이 1좌가 있고 그 좌우에 망주석 1쌍이 있다. 그 한 단 아래에 사각옥형 명등석 1좌(四角屋形 明燈石 1座)와 문인석(文人石)과 마석 각 1쌍(馬石 各 1雙)이 서로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고 무인석(武人石)은 없다. 이는 추봉(追封)된 경릉(敬陵)이나 정릉(貞陵)의 예에 의한 것이며 사각옥형 명등석(四角屋形 明燈石)은 정릉(貞陵)에 이어 장릉(莊陵)에서 시작된다.

능침(陵寢) 언덕 아래 남측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정자각(丁字閣)은 능침좌향(陵寢左向)과 같은 방위로 세우는 것이나 장릉(莊陵)은 능침좌향이 서남에서 동북향인데 비하여 정자각(丁字閣)은 남향으로 건립되었으니 이는 단종(端宗)이 사사(賜死)된 후 엄흥도(嚴興道)에 의하여 암장(暗葬)되었다가 숙종(肅宗) 24년(1698) 추복(追復)되고 영조(英祖) 9년(1733)에 정자각(丁字閣)을 건립된 것이다. 비면(碑面)엔 조선국단종대왕장릉(朝鮮國端宗大王莊陵)이라 썼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영조(英祖) 9년(1733)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서남방에 영천(靈泉)이 있으며 장릉 봉제시 사용되었고 영천비(靈泉碑)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으며 정조(正祖) 15년(1791)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남측(丁字閣 南側)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홍살문 남측(紅箭門 南側)에 단종(端宗)을 위하여 순사(殉死)한 충신들을 봉제(奉祭)하는 배식단(配食壇)에 봉향(奉享)되는 충신위 32인(忠臣位 32人), 조사위 198인(朝士位 198人), 환관군노 28인(宦官軍奴 28人), 여인위 6인(女人位 6人) 모두 264인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한 배식단사(配食壇祠)가 있으며 정조(正祖) 15년(1791) 2월 정조(正祖)의 교지에 따라 당시 영월부사 박기정(朴基正)이 건립한 것이다.

홍살문(紅箭門)에서 장릉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 북측(道路 北側)에 재실(齋室)이 있으며 배식단사(配食壇祠)와 재실 중간에 엄흥도 정려각(嚴興道旌閭閣)이 있다. 영조(英祖) 2년(1726) 엄흥도(嚴興道)를 정려(旌閭)하고 정조(正祖) 16년(1792)에 정려비(旌閭碑)와 비각(碑閣)을 영월읍 영흥리(寧越邑 永興里)에 세웠는데 영월 도시계획도로(寧越都市計劃道路)에 편입되어 1969년 5월 이곳에 이진되었으며 주차장 북측(停車場 北側)에 낙촌비각(駱村碑閣)과 낙촌기적비(駱村紀蹟碑)가 있다. 낙촌(駱村)은 문경공 박충원(文景公 朴忠元)의 호(號)로서 박충원(朴忠元)이 중종(中宗) 36년(1541) 영월군수(寧越郡守)로 부임하여 현몽(顯夢)으로 노산묘(魯山墓)를 찾아 수축 봉제(修築 奉祭)한 사적(事蹟)을 기록하였으며 1973년 4월 박충원(朴忠元)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낙촌비각 동남측(駱村碑閣 東南側)에 배견정(拜鵞亭)이 있으며 정조(正祖) 16년(1792)에 영월부사 박기정(寧越府使 朴基正)이 건립한 것이다.

능역내(陵域內)에 능제(陵制)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외에 배식단사(配食壇祠), 정려비(旌閭碑), 기적비(紀蹟碑), 정자(亭子)가 있는 곳은 장릉(莊陵) 뿐이며 왕위(王位)를 찬탈(篡奪)당하고 사사(賜死)된 단종(端宗)과 관련된 것들이다.

4. 장릉관련기사

趙旅, 《漁溪先生集》卷3, 附錄 魯陵事實

世祖大王[三年] 丁丑正月 上王出居錦城大君瑜家 大月二十八日 降封上王爲魯山君 安置于寧越郡西江清泠浦 尋移寓於客舍東軒 安置錦城大君子順興府 錦城大君與順興府使李甫欽 謀復魯山君 每相對 慷慨流涕 潛結南中士人 一日 錦城召甫欽 辟左右使草檄 將發順興兵及南中與議者 迎魯山君以踰嶺 官奴爲吸唱者 潛匿壁中而聽之 仍交錦城宮侍女 竊其檄文 奔走東京 時基川今豐基縣監者聞其事 替騎三四馬疾逐之 奪其檄 先入京上變 遂得大功 錦城, 甫欽皆被死 南中士人 死者亦多 漢南君瓔 永豐君璟 寧陽尉鄭棕等 皆坐瑜黨 安置禁錮 十月 命賜魯山君死 禁府都事奉藥到寧越 蹶蹶不敢入 拿將以時刻之遲誤 立而頓足 都事不得已入伏庭中 魯山君俱翼蟬冠 龍袞袍 出御堂中間所以 都事無以答 有一貢生常侍魯山君者 請自當之 以一條弓弦 繫頸而絕 時年十七歲 是月二十四日酉時也 貢生 九竅流血斃 侍女從人 多投江 浮屍滿江 雷雨大作 列風拔木 黑霧彌空 鎮撫來莅 暴魯山君戶於外 邑宰從人 莫敢收斂 郡首吏嚴興道往來獄街哭泣 修棺營葬 興道族黨 懼有禍爭止之 興道曰 爲善被禍 吾所甘心 卽葬于郡北五里許冬乙旨向東之原 [參例服喪之人 亦或有焉]

尹鑑, 《白湖先生文集》卷10, 疏 請復魯陵疏[己未正月二十日]

伏以天時有變動之運 人事有反經之道 此天下事變之不一 而聖人所以處之者 未嘗失其經常之道者也 嗚乎 乃者景泰年間 我文宗大王 以世宗大王之冢嫡 嗣承寶位 魯山君又以文宗大王之世嫡而踐阼 此天下之大經也

不幸幼冲負屨 天步艱難國勢危疑 我世祖大王 不能不撥亂行權 由九四而升九五 以應天人之會 此則天運之變 不容人力者也 以故魯山君 始遜位于昌德宮 居上王之尊 中罹變故 遷于寧越 鬼神助禍 卒以至於大泯其位號 此乃人事之極變 而天心之未嘗不怫鬱 於是者也 當時之已事 鬼神暗鳴 魯陵之松柏 過者流涕 千載之下 固應有游談者之指議而咨嗟者焉 臣以爲殿下初承寶位 釐正大禮 斥遠邪說 以尊宗廟 以述先王之志 至孝也 今若追復魯山君位號徽稱 而入耐永永祖宗之祧廟 俾受臣民永世之享 墳土之蕪穢者 亦爲之修治 置園號 俾有父老之瞻敬 于以慰祖宗之靈 以承皇天之心 以副兆民之望 又豈非正經處變 順天協民 光祖宗保子孫之大孝至德乎 鄉者我太宗大王妃神德王后 以太祖大王適配 首膺天朝誥冊之命 正位中壺 禮陟配天 而一時臣子 不能修舉陞祔之大禮 幾三百年于茲 逮我顯宗大王 因萬人一口之公論 舉先王未遑之大典 此實我顯考盛德大業垂之百世者也 今我主上殿下踐先王之位而行先王之禮 克舉是禮于二百年之後 又豈非文子文孫善繼善述克肖克類者乎 臣竊伏聞 世祖大王之訓世子有之曰 我當屯而汝當泰 若局於吾迹而不知變通 則非所以順吾之志也 事有可行時 有不可行時 豈可泥於前事而不知變通哉 又曰 當代之亂臣 卽後代之忠臣 旨哉其經世圖遠 詔告 子孫之大慮微言也 以是之故 我中宗大王 復昭陵而遷祔之 宣祖大王 訪魯墳而封植之 至于孝宗大王暨顯宗大王 又爲之遣官致祭 加禮益虔焉 嗚乎 以世祖之子孫 而列聖之因時通變 虔恭昭事 無嫌於前事 不局於往跡 若是者 乃所以忠孝我世祖大王 而益修孝子慈孫之職 以體世祖大王當日詔告百世子孫之心也 猗歟休哉 在我中朝 建文皇帝以太祖皇帝世嫡而承大統 及太宗皇帝由燕邸靖亂而有革除之事 及後論議之定 追上讓皇帝之號 天下宜之 又悉復建文 死難臣方孝孺等官爵而表章之以伸九泉之冤 今我魯山君之事 亦與此無異也 而天朝

之盛舉 豈非我國之所可準則者乎 至如當時被罪臣金宗瑞 皇甫仁 成三問等 亦宜追復官爵 表節愍忠 如方孝孺之例 以爲臣子之勸 以示來者 傳曰 民所歌舞之 必佑之 若我今日 能順斯民之願 體祖宗之心 而舉前代之未遑 則天人有不應之理 鬼神有悔禍之心 祖宗在天之靈 亦必悅豫於冥冥之中 而降祥錫福 子孫逢吉 年時充美 物無疵癘 未必不由是而始矣 昔漢鄧禹從光武于河北而勸之曰 明公欲 中興帝室 必能行人所不能行 用能啓發主衷 克就大業 美哉斯言也 今臣生逢聖明 蒙被恩遇 亦不能不以鄧生之言 望於聖上 惟聖上於斯深留聖意 亟賜處分 咨詢大臣儒臣而斷然行之 實宗社無疆之休 爲今日祈天永命之基 雖成湯之肇修人紀 周武之再紘彝倫 亦無以過此 而永有辭於天下後世矣 臣抱此耿耿 欲一吐之 黈纆之下者 久矣 顧以聖上方居諒闇 繼多違豫之日 臣又去國在外 吞聲未徹 以至今日 深恐衰老已甚 餘年無幾 終不能一言於未死之前 永負臣子之責 所以忘 其僭越 敢卒言之如此 向日筵中所白 臣當繼有仰陳者此也 臣誠惶誠恐 頓首頓首 伏願聖上寬其斧鉞而察其惓惓焉

貼黃

臣既成此疏 人或以爲魯山君既失其位號 今不可追復 臣以爲不然 自古禪讓之時 帝王固有失其位號者 然既歿之後 則亦無不復其位號而葬之以禮 歷代皆然 先儒以爲猶有忠厚之道焉 異代尚然 況於當代祖宗之乾胤乎 魯山君 以世宗大王之孫 文宗大王之子 纂承大統 世祖大王 亦尊之爲上王 其位號天屬 與我恭靖大王無異也 此古人所謂王司敬民 罔非乾胤者 若自子孫臣民視之 則均之爲祖宗也 雖遭變故 未終其位 然其既爲宗社臣民之主 未嘗自絕于天也 而爲後世子孫之所當尊事 則誠無甚重輕於列聖也 臣謂今日追復位號 入于祖宗廟 寔典禮之不可已者也 或者又以爲今日若復魯山君位號 是彰世祖之過 臣又以爲大不然 世祖大王 雖有一時處變之事

亦深知典禮之不可闕於後世 故其訓固曰若拘於吾 迹而不知變通 則非所以順吾之志也 其雅意可見而微言可徵矣 况所謂當代之亂臣 爲後代之忠臣云者 更推及惻隱之意於爲其臣子者 猶我祖宗追禮於恭讓王 鄭夢周之意也 此又彰明較著 顯示子孫 猶恐子孫之不能通曉其志也 嗚乎悽矣 今日魯山君之復辟 乃所以順成世祖大王之志而增光于世祖者也 亦當日世祖大王之尊魯山君爲上王之初心也 我祖宗之靈 亦豈不曰子有後 善繼善述 不棄基也 豈是爲彰祖宗過之理哉 况事輕重大小有差 旣 魯山世祖 罔非乾胤 均是吾君之子 則安可以區區小嫌 有所避忌遷就 而不以是禮於君父哉 人之爲言 甚矣 其不識輕重大小之理 而不思爲宗社臣民之罪人也 人又謂建文尊爲讓皇帝之事 固有與今日事相契 而但事起於末季 旋即仆滅 其事有不足法者 此又不思之甚者 建文復位之議 始於孝宗之世 實天下之公議也 而因循不行 以迄于南渡 則大亂之後 人心創悟而公論始行 蓋可見天理之久而不泯 人心之鬱而乃發也 直不能行之於可爲之時 以祈天心之 悔悟 國命之延長而乃行於顛覆之後 無以感回天心 弭伏禍亂 比如仙方大藥 用之垂絕之際耳 顧何可以是爲言哉 凡人多有駭於創聞 泥於因循而不識大體 欲望聖明凝神靜慮 服念於夜氣清明之際 內裁於心 博詢於大庭 而勿爲游言淺慮者之所撓 以定國之大典 詩曰 奕奕寢廟 君子作之 秩秩大猷 聖人莫之 此臣之今日所望於聖人者也 又曰 趨趨麋兔 遇犬獲之 它人有心 予忖度之 此又足爲今日不知而言者之戒也 惟聖上財察 臣又惶恐上聞

元昊,《觀瀾先生遺稿事蹟》卷3,實紀 魯陵誌[魯陵誌今改名莊陵誌○尹舜舉]

元昊 原州人 光廟受禪 以集賢殿直提學 棄官還鄉 退伏于原州之南松村 杜門謝世 不出戶庭 親知之仕於朝者 多來請見 絕不引接 有觀察使簡

其徒 微服往見 昊初不知出迎 面之則觀察也 便揮却走而入 若將浼焉 觀察裸然而歸 光廟特拜戶曹參議微之 不就 厭其近於官府 遂入酒泉縣山谷中 以終身焉 墓在南松[出生六臣集]

元昊,《觀瀾先生遺稿事蹟》卷3,實紀 莊陵誌[正宗朝命編輯]

元昊號霧巷 原州人 世宗癸卯 登第 明谷集世祖受禪 以集賢殿直提學 棄官還鄉[師友言行錄]端宗遜于寧越 就越之西 築石名觀瀾 或臨流嘯詠 或閉戶著書 晨夕瞻望涕泣 端宗薨 服喪三年 制畢 復歸原州舊廬 不出戶庭 人莫得見其面 其侄子原城君孝然 屏其徒御踵見 堅拒不許 世祖特除戶曹參議召之 以死自誓 不應命 坐必東向 臥必東首 以莊陵在東也[明谷集]肅宗戊寅 命旌其閭 [諡狀] 今上辛丑 贈吏曹判書 甲辰 賜諡貞簡 享原州七峯書院 咸安西山書院 俎豆錄 後享龍溪書院 爲人雅重寡言 氣度精明 文學聲望 大爲儕友推重 揚歷清顯 常侍經幄 獨審乎幾微之際 盡節乎傳禪之後 高舉遠引 丙子 就越之思乃坪 樹屋以居 處明夷之艱 利箕子之貞 以晦其跡 得大雅之明哲 致命遂志 與成謹甫諸公 異塗而同歸 後之篤論者曰 悅卿 今之伯夷 六臣 今之方練 又曰 煙村 霧巷 比六臣較高 霧巷 卽公 煙村 崔直學德之云[出莊陵史補 列傳補遺]

南九萬,《藥泉集》제14,應製錄 端宗大王諡册文

維歲次戊寅十二月辛丑朔二十五日乙丑 嗣王臣御諱謹再拜稽首上言 竊以推位讓國 至德無稱 獻諡尊名 闕典乃舉 茲將顯册 敢薦微忱 恭惟恭懿 溫文大王 仁聲令姿 世孫元嗣 自在弱歲 荷英陵負背之慈 連遭大喪 承文廟頽面之訓 無柰國步之多難 以致曆數之有歸 移居上宮 禮愈極於尊養 固辭徽號 意彌存於撝謙 且慕周泰伯之荊 仍作帝重華巡野 看花天遠 嗟

景命之不延 葬衣山深 慨緝儀之未備 今殆過二百年所 尙有感千萬人心
肆庸集議於群工 遂定升祔於列祖 虎賁嚴衛 如迎翼室之宅宗 龍旂戒行
若奉冕服之歸亳 雖傳序已及於祧位 然節惠可闕於彝章 精而粹慈而仁 靡
有爭競 履乎正由乎義 罔不服從 至若名廟而贊揚 尤見守禮而恭遜 心輕
萬乘 誠難擬議其高風 德重千秋 允合表揭其盛美 爰卜吉日 式陳明禋 謹
遣臣議政府領議政柳尙運 奉玉冊上尊諡曰 純定安莊 景順敦孝 廟號曰端
宗 仰冀睿靈 俯垂沖鑑 肇稱殷禮 庶是饗而是宜 申錫洪休 期俾昌而俾熾
嗚呼哀哉